삼보 관계자 골든벨트상 수상



러시아무예연합이 무예 분야 '골든벨트상' 시상식을 10월 20일에 거행하였다. 무예 및 호신술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.

모스크바에 위치한 '러시아' 중앙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19년에 화려한 활동을 한 다양한 종목을 대표하는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. 총 9개 부문 시상이 있었다.



국제삼보연맹 장애인 선수 위원회 위원 로만 노비코프가 '승리를 향한 의지' 부문에서 '골든벨트'상을 거머쥐었다. 레오 보케리아 국민건강리그 회장이 시상을 진행하였다.



‘무예 발전 공로’ 부문에서는 세르게이 옐리세예프 국제삼보연맹 부회장, 유럽삼보연맹 및 러시아 삼보연맹 회장이 상을 받았다. 바실리 세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이 상을 수여하였다.

모든 수상자는 러시아 국민 예술가이자 무예 마스터 알렉산드르 루카비시니코프가 제작한,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‘골든벨트’ 트로피를 수여받았다.